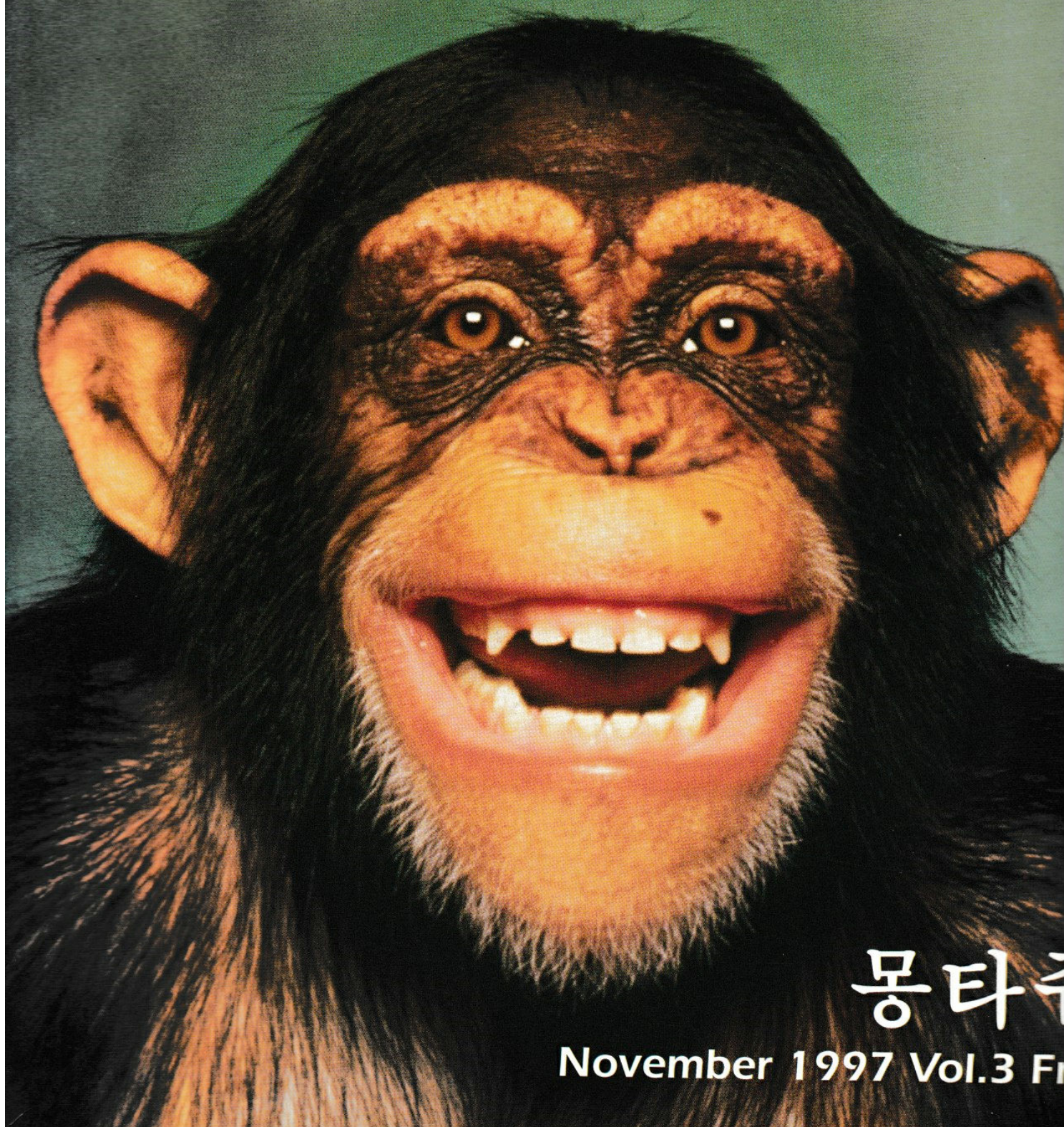


Andy *magazine*



몽타주

November 1997 Vol.3 Fr



어항 - 11, 91×65.2cm, 천위에 아크릴릭, 1997



안창홍 1997.
1952년 경남 밀양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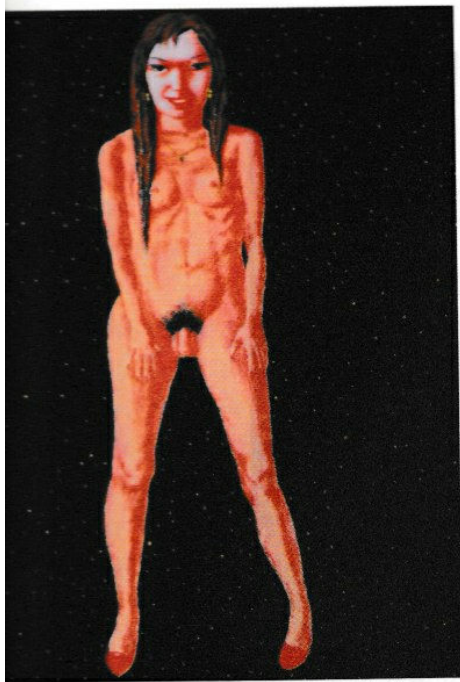
개인전

- 1980 제1회 안창홍작품전(공간화랑, 부산·청년작가회관, 서울)
- 1984 제2회 안창홍작품전(고려미술관, 부산)
- 1986 제3회 안창홍작품전(한강미술관, 서울·사인화랑, 부산)
- 1987 제4회 안창홍작품전-새와 사람이야기(갤러리 누보 초대, 부산)
- 1989 제5회 안창홍초대전(온다라미술관 초대, 부산)
- 1991 제6회 안창홍초대전(맥화랑, 부산)
- 1991 제7회 안창홍초대전(샘터화랑, 서울)
- 1993 제8회 안창홍초대전(금호미술관, 서울)
- 1994 제9회 안창홍작품전(갤러리아 아트홀 초대, 서울·갤러리 누보 초대, 부산)
- 1995 제10회 안창홍작품전(이목화랑 초대, 서울)
- 1995 제11회 안창홍작품전(나무화랑 초대, 서울)
- 1995 제12회 안창홍작품전(그림시화랑 초대, 수원)
- 1997 제13회 안창홍작품전(전경숙 갤러리, N·C 갤러리 초대, 부산)
- 1997 제14회 안창홍작품전(이목화랑 초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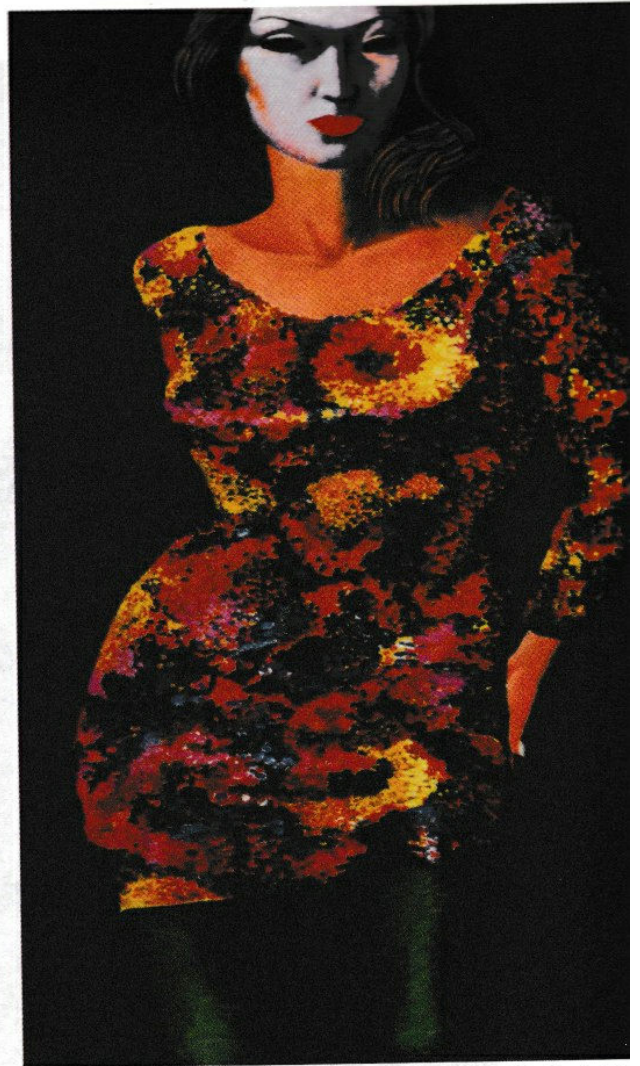


〈유한마담과 아티스트〉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97×145cm, 1994.

화가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마치 국가 검정고시 치르듯, 헛된 시간과 아까운 정열을 비즈니스에 바치고 어딘가를 향하여 머리 조아린 채 충성한다. 잘 훈련된, 말 잘 듣는 양순한 개처럼, 안전하게 처진 울타리 안쪽에서 재주부린 대가로 던져 주는 고기로 배를 채우고, 기름기 도는 털을 붉은 헛바닥으로 핥으며 만족해 한다. 우리는 이 치욕스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한 믿음과 신명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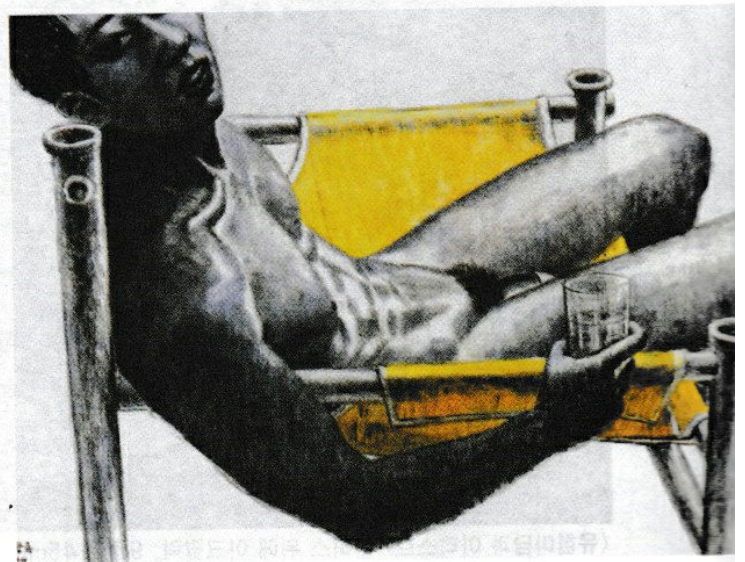
〈여장남자-나의 육체도 너희들처럼 아름답다〉
종이 위에 아크릴릭, 70.5×100cm, 1994.



〈립스틱 질게 바르고 2〉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80.5×116.



〈입맞춤〉 종이 위에 먹, 76.5×113.5cm,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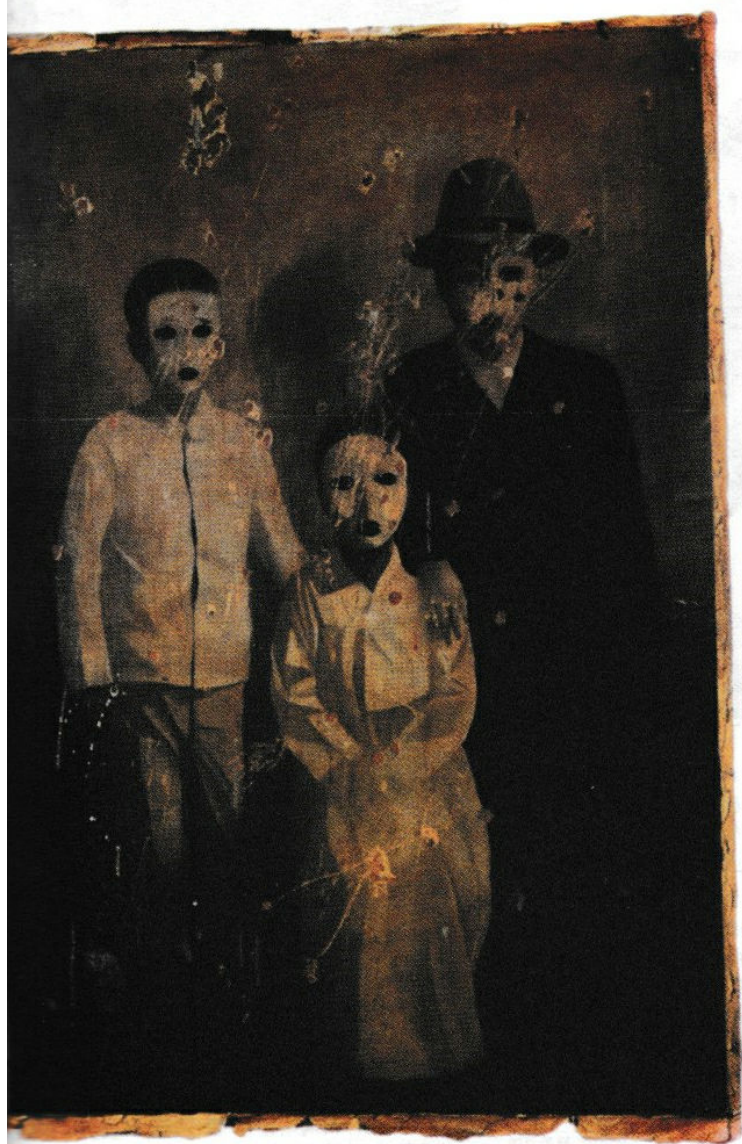


〈일광욕〉 종이 위에 아크릴릭, 113.5×76.5cm,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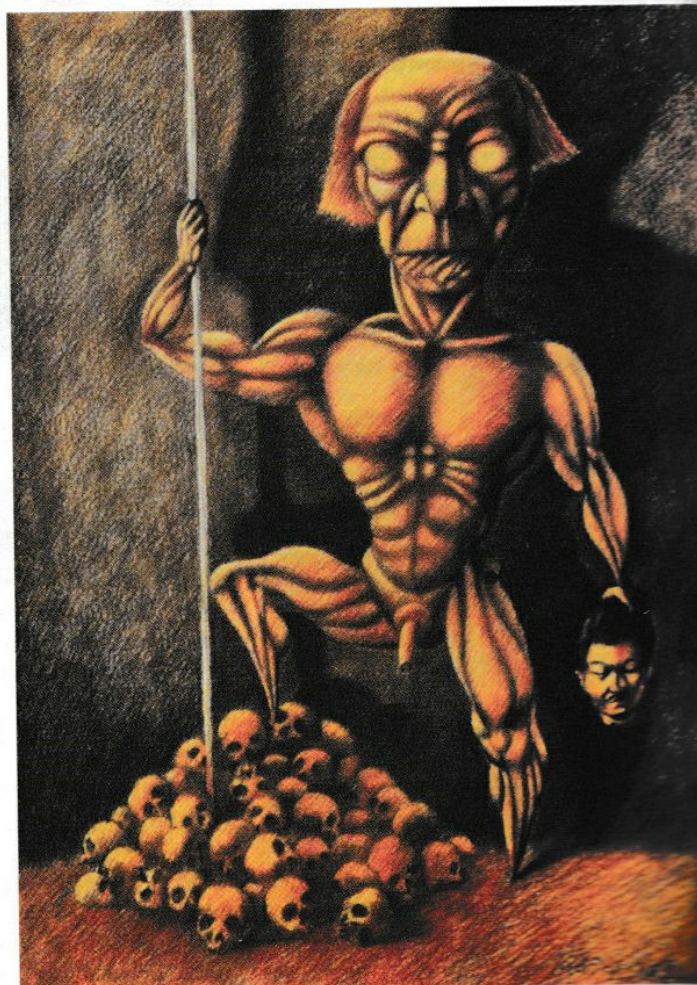
폼나고 당당한 것들보다 가벼운 것, 하찮은 것, 유치한 것, 천박한 것, 통속적이고
은폐되고 금기시된 것들이 오히려 제각기 짙은 향기를 풍기며 나의 감각을 유혹한다.

...까까머리에 빛바랜 교복과 다소 거칠긴 해도 정직하고 순수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시절, 일찍 자립한 탓에 학교와 공장과 화실을 줄다리기하며 세상살이 배우기와 화가수업 쌓기에 바빴는데, 언제부터인가 혼자라는 고독감이 예민하고 민감한 내 감성을 병들게 하였고, 급기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 힘겨운 상황들이 결국 나를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놀러간 친구집에서 우연한 기회에 독약을 구하게 되고 며칠 고민 끝에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며칠 후 찬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늦가을, 자살하기 좋은(?) 어느날 텅빈 화실 낡은 소파에 반듯이 누워 푸르스름한 새벽빛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알약을 입에 털어넣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열여덟 인생의 마지막 회한에 잠긴 채 그 길고도 지루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회색빛 도시여, 굿바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과 잡다한 자동차 소음속에서 충혈된 눈으로 일어나 앉아 목탄과 지우개 가루가 흩어진 너절한 화실 바닥을 멀거니 바라본다. 저승사자가 나의 질긴 목숨을 데려가지 못한 것이다. 약의 효력이 약했던 것일까? 다음날 우연히 만난 그 친구가 쥐같이 작고 음흉한 눈을 반짝이며 "창홍아, 니 며칠 전 집에 왔을 때 서랍 속 종이에 싸놓은 알약 못 봤냐? 오늘 우리집 캐리 교배 불일 때 쓸라고 사놓은 흥분제데 혹시 니가 가져간 거 아يا?" 순간 나는 너무 충격받아 흐물흐물 의미있는 웃음을 띠는 그 친구 앞에서 황급히 돌아섰고,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숨겨야 했다... 한 알만 먹어도 통증없이 즉사한다고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의 농담을 어리석게도 진담으로 믿고 약을 슬쩍 하였고, 결국 흥분제 먹고 누워 비감한 마음으로 목숨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이다. ... '자살과 흥분제'라는 아이러니한 이 두 낱말이 가지는 나만의 의미는 내가 화가로서 나의 언어를 찾는 데 기초지식이 되어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살이 속의 블랙 코미디를 바라보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



〈가족사진 3〉 종이 위에 유채, 76×115cm, 1982



〈뱀내는 지배자〉 종이 위에 색연필, 79.5×109.5cm, 1985